

# “신천 하나놓고 용역 남발말라”

## 수질개선·치수방제 ‘따로’...시설물도 실효성 의문

### 대구시의회 상임위 추경심사

대구시의회(의장 장경훈)는 1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열고 각 소관기관의 2007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 안건들을 심사했다.

◆건설환경위원회(도재준) = 신천·금호강 종합개발과 관련된 질문과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신천의 개발에 관심이 집중됐다.

최문찬(달서4) 의원은 건설방재국 심사에서 신천 종합개발과 관련해 “계림라성 폭우로 인한 신천의 피해 때문에 신천 치수방제에 대한 용역을 한 것으로 안다”며 “용역을 했는데 또 신천종합개발을 위한 용역을 하는데 신천 하나를 두고 용역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수질개선, 치수방제 등이 따로 놓고 있다”며 신천 관리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강경덕 건설방재국장은 “태풍 때 미 이후 치수방제에 대한 용역은 수량 증가에 대비한 수용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신천종합개발 기본설계용역은 시민들의 신천이용에 관계된 이수적 차원의 것”이라고 답변하자 최 의원은 “신천 둔치와 주차장 등의 개발 때문에 손해가 가장 됐는데 이러한 시설을 더 늘인다는 것이 말이 돼냐”며 “2002년 실시한 신천에 대한 치수방제 용역을 보지도 않고 폐기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용성(달서5) 의원은 “구 신천수영장 철거구간 둔치정비사업용역으로 3천만원을 올렸는데 용역할 게 있냐”며 용역의 필요성에 문제를 제기했고 강경덕 국장은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위원장 도이환)의 추경예산안 심사 장면

“박찬석 의원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국비 7억원을 받아놓아 수영장 부지를 자전거 연습장이나 교육장으로 활성화하고 중동교 위에 있는 에어로빅장의 단면을 넓히는 등의 사업을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지 의원은 “제한된 용지에 자전거 관련 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최문찬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수해 피해 때문에 1억5천만원을 들여 철거한 수영장 부지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말이 돼냐”며 “국비7억원 받았다고 시비 22억을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신천에 얼마를 퍼부를 거냐”고 말했다.

김대현(수성2) 의원은 “신천 하나를 두

고 여러 부서가 관리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대구시도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질개선 부분”이라며 “신천종합개발계획에서는 수질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지 않는데 수질개선을 기본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이재술) =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체계구축과 도시 재생사업 추진 등을 위해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동구여성문화회관’의 명칭에서 동구를 빼기로 한 것을 북구의 여

성회관과 혼동의 여지가 있다며 명칭변경을 유보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또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해 업무의 성격, 중요도, 난이도 등에 맞게 직급을 정하는 등의 내용인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동구 팔공산자연공원 중 일부 지역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에 대한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도시계획세 부과제의 지역 지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경제교통위원회(위원장 도이환)는 이날 심사에서 시장도메인제 정산시스템구축비 8천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최일영기자 mc102@idaegu.com